

# ‘고물가’ 언제 잡힐까...꿈틀대는 유가에 먹거리 고공행진

### 외식비 2년 연속 6% 이상 상승...피자 11.2% ↑ 작년 20% 오른 전기·가스·수도...상반기엔 동결 국제유가 상승으로 금주 국내유가 상승 본격화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성수품을 포함한 물가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서민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과거보다 배로 오른 수준이다. 거기다 국제유가도 두 달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나온다.

2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외식물가는 최근 2년 연속 6%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 2022년 전년 대비 7.7% 상승한 후 지난해 6.0%로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 전년 대비 증감을 보면 토핑으로 다양한 채소 등이 들어가는 피자의 물가 상승률이 11.2%로 유일하게 10%를 넘겼다. 그 다음으로는 햄버거(9.8%), 김밥(8.6%)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물가의 증가 폭은 전년 대비 커졌다. 2022년 3.8%에서 지난해 4.0%까지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보험서비스료(12.9%), 목욕료(12.7%), 찜질방이용료(11.7%), 운동경기관람료(10.2%), 간병도우미료(9.8%), 세탁료(9.5%) 등 생활에 밀

접한 개인서비스의 비용이 10% 안팎으로 크게 올랐다.

전기·가스·수도는 지난해 전년보다 20.0% 오르면서 관련 항목을 집계한 지 13년 만에 역대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물가가 고공행진했던 2022년(12.6%)보다도 증가 폭이 커졌다.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2%대 물가 도달을 목표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에 10조8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물가 상승세가 지난해 12월 3.2% 오르면서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다. 3%대 초반대로 점차 둔화하고 있지만 상반기까지는 3%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까지 3%대에 머물다 하반기에 가서야 2%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언급한 건 원가 비용 절감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미뤄던 공공요금 인상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음 달이면 유류세 인하나 만료되는 가운데, 최근 국제유가도 꿈틀거리고 있다. 중동의 지정학적 우려가 확산하면서 국제유가도 두 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2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77.36달러로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국내 유가는 1월 넷째 주(21-25일)까지 16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유가 상승세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이번

주부터는 전국 기름값 상승이 본격화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다음 달 말 유류세 인하 조치의 일몰을 앞두고 있다. 다음 달 중순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상반기 2%대 물가 목표를 선인한 만큼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이후 인하 폭을 조정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휘발유는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의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후 이 조치가 다음 달까지 네 차례 추가 연장 중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수출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지만 그 훈풍이 내수와 소비로 미치기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수권기자

## 중소기업 41.8% “설 상여금 지급 예정”...평균 60만9천원

### 811개사 대상 '2024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올해 설 상여금 지급 수준은 정액 지급시 1인당 평균 60.9만원으로 조사됐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81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2024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설 대비 20.9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정액 지급시에는 기본급의 평균 60.3%를 지급할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올해 설 자금으로 평균 2억3890만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요자금 대비 부족자금은 평균 194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설 자금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납품대금 조기회수 35.4% ▲결제연기

30.4% ▲금융기관 차입 17.7% 순으로 응답했고, '대책없음' 응답도 31.6%에 달했다.

올해 설 상여금 '지급예정'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41.8%로 나타났다. 아직 결정하지 못한 업체는 25.2%로 조사됐다.

설 휴무계획에 대해서는 94.7%의 업체가 설 공휴일에만 휴무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5.3%의 업체가 공휴일 외에 추가로 휴무하며 추가 휴무일은 평균 1.3일로 나타났다.

한편 작년 설 대비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26.6%로 조사됐다. '원활하다'는 응답은 17.3%로 조사됐으며,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은 56.1%를 차지

했다.

자금사정 곤란 원인으로는 '판매·매출 부진'이 65.7%를 차지했다. 뒤이어 ▲원·부자재 가격 상승 52.3% ▲인건비 상승 32.4% ▲판매대금 회수 지연 10.2% 등으로 답변했다.

작년 설 대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원활하다'라는 응답은 19.5%를 차지했다. '곤란하다'는 응답 11.6%로 집계됐으며,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은 68.9%였다.

은행에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대출금리'가 31.3%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대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의 심사 8.4% ▲대출한도 부족 7.6%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 7.0% 등이 뒤를 이었다.

뉴스스



## 벤츠, 수입트럭 급성장...볼보·스카니아 '추격'

### 지난해 벤 포함해 870여대 판매

메르세데스-벤츠가 수입 승용차를 넘어 수입 상용차 시장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8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다임러 트럭 코리아가 수입·판매하는 메르세데스-벤츠 트럭은 지난해 총 650대가 팔렸다. 한 해 전보다 37.4% 늘어난 수치다. 벤 모델을 포함하면 총 875대로 만(MAN) 트럭을 제치고 수입 상용차 판매 3위로 올라선다.

지난해 수입 상용차 판매 1위는 볼보트럭으로 총 1680대를 팔았다. 하지만 전년 판매 대수(2178대)와 비교하면 22.9% 감소했다. 스카니아도 전년 대비 28.6% 급감한 1116대 판매에 그쳤다. 주요 수입 상용차 업체 가운데 지난해 판매가 증가한 곳은 다임러 트럭이 유일하다.

독일 다임러그룹 산하 상용차 계열사인 다임러 트럭은 산하에 벤츠 트럭 등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한다. 지난 2021년 12월 다임러그룹

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 부문과 별도로 분사했다. 한국 법인인 다임러 트럭 코리아도 승용차 판매 회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별도로 운영된다.

다임러 트럭은 지난 2003년 국내에 진출해 악트로스, 아룩스, 아테고 등 여러 상용차 제품을 판매 중이다. 지난해 국내 진출 20주년을 기념해 할부 금리 할인 등 영업활동을 강화한 것이 판매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4월에는 경기 여주시에 수입 상용차 업계 최고 수준의 트럭 전용 부품센터도 설립했다. 7000여종, 총 15만개에 달하는 트럭 부품을 갖춘 전용 부품물류센터로 핵심 부품 보유율을 99%까지 향상시켰다.

다임러 트럭 관계자는 “수입 상용차 회사 중 가장 큰 규모의 전용 출고 센터와 전국 16개 공식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는 등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기 트럭 조기 도입과 신규 브랜드 도입 등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서선욱기자

## 남양건설, '장성 남양휴튼 리버파크' 모델하우스 오픈

남양건설이 지난 26일(금) 전남 장성군 장성읍 일원에 위치한 '장성 남양휴튼 리버파크'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

청약일정은 2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7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6일, 정당계약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단지가 위치한 장성군은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광주시와 전남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세대주 여부, 보유주택 수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계약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단지는 1차 계약금 5%와 중도금 대출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제공되며 계약금 10% 완납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장성 남양휴튼 리버파크'는 전남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 112-3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3개 동 전용면적 80~84㎡ 총 18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80㎡A 36가구, △80㎡B 16가구, △84㎡A 27가구, △84㎡B 19가구, △84㎡C 34가구, △84㎡D 38가구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됐다.

이 단지는 전가구 탁 트인 황룡강 조망권을 갖췄다. 하천을 끼고 나오는 황룡강 생태공원을 통해 쾌적한 녹지 환경도 조성돼 있다.

'장성 남양휴튼 리버파크'는 장성 원도심이 품은 인프라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엘로우시티스타디움, 장성농협하나로마트, 장성군청, 장성해원병원, 보건소 등 각종 편의시설과 KTX장성역 근처 먹자골목도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단지 도보권에는 장성중앙초를 비롯해 장성중·여중, 호남권 명문고인 장성고 등 우수 학교도 형성돼 있으며, 영천리 중심학원가도 가깝다.

교통도 우수하다. 광주 전역으로 이어진 장성IC, 북광산IC 등이 가까워 호남고속선, 호남선 등의 접근성이 좋다. 또한 단지 인근

### 전용면적 80㎡ 52가구, 84㎡ 128가구 총 180가구 규모



에는 KTX장성역과 장성공영버스터미널이 위치하고 호남고속도로를 통하면 광주공항까지 이용 가능해 국·내외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단지 인근에 '첨단3지구(2025년 예정)'가 개발 중에 있어 배후수요 유입도 기대된다. 첨단3지구는 연구개발 특구단지로, 인공기능 기반 국립과학기술장업단지와 국내 최초의 국립심혈관센터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특히 이미 조성을 끝낸 첨단1, 2지구는 물론, 광주 대표 상업지구인 삼우지구,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의 가까워 직주근접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으며, 산업체 종사자들의 배후수요 역시 기대해 볼만하다.

또한 4900억 원 규모 장성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오는 7월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가고, 장성군이 백중원 대표의 ㈜더본코리아 업무협약으로 더본의 식산업개발원 장성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장성 남양휴튼 리버파크' 단지가 들어서는 기산리 일대는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춰 주거 만족도가 높은 장성의 핵심입지다. 특히 2025년 개발 예정인 광주 연구특구 첨

단3지구의 탄탄한 배후수요 확보로 미래가치 또한 높게 평가될 전망이다.

'장성 남양휴튼 리버파크'는 전담과 광주를 중심으로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해온 중견 건설사인 남양건설이 시공하고, 시행은 신용도가 높은 대한토지신탁이 맡아 안전성을 높였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17만 회원수, 약 15조 자산) 전액 출자로 탄탄한 공신력과 탁월한 전문성, 자금 동원력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은 A-로 높은 신용도까지 갖췄다.

분양관계자는 “장성에 들어오는 첫 남양휴튼 브랜드 아파트만큼 벌써부터 실수요자들의 기대가 크다”며 “노후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 공급되는 신축 브랜드 아파트로 차별화된 설계와 전가구 황룡강 조망권 확보로 우수한 주거환경을 자랑할 것”이라고 전했다.

모델하우스는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1-52번지 일원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6년 6월 예정이다.

장성=김수권기자

## 한우 최대 50% 할인...전국 1885개 매장 운영

### 농식품부, 대규모 한우 할인판매 행사 진행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29개 업체, 1885개 매장에서 전국 단위 대규모 한우 할인판매 행사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할인 행사는 고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낮추고 최근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는 소비 촉진 등을 통해 어려움을 덜고자 준비됐다.

이번 할인 행사에서는 평소 판매가격의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100g당 1등급 등심의 경우 8180원 이하, 1등급 양지의 경우 4620원 이하, 1등급 불고기·국거리류는 3020원 이하 수준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세부 할인 행사 일정은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의 경우 31일부터 실시된다. 농축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2월2일부터 시작된다. 29일부터는 온라인 한우장터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김정숙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앞으로도 물가 안정과 함께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들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연중 한우 소비 촉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슬비기자